

C_M_003 고대장본풀이

1 개요

고대장본풀이는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고만호 댁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고대장은 뛰어난 심방이어서 이형상 목사가 당을 철폐할 때 제주성 일대의 당을 지켜내었고, 조천읍 선흘리 안씨 댁 굿을 갔더니 그 집안의 조상신이 따라온 덕에 발복하였으며, 큰 가뭄이 들었을 때는 기우제를 하여 비를 내리기도 하였다.

2 내용

영천(永川) 이목사(李牧使) 시절, 이목사가 당과 절을 파괴하며 제주 삼문 안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으로 남문 밖 각시당을 파괴하려고 심방을 불렀다. 이때 무근성(陳城洞) 고만호 대장이 팔자가 굳어 큰 심방이 되었는데, 목사가 고씨 심방에게 각시당의 영험함을 보이라고 명하였다. (또한 스님을 불러다가 불공을 하여 동헌에 눕혀 놓은 불상이 일어나게 하는 영험을 보이게 하였다. 스님은 영험함을 보이는 데 실패하였다.) 영천 목사는 각시당에 벙맺기(兵馬旗) 꽂아놓은 것을 보고, 굿을 하여 깃발이 동헌까지 걸어오게 하라고 하였다. 심방은 칠일 정성을 드릴 시간을 달라고 청하고, 집으로 돌아가 당주에 신원을 올려두고 도내의 심방들을 불러 7일 되는 날 동헌 마당에서 굿을 하였다. 굿을 하니 갑자기 천하가 요동하더니 깃발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영천 목사는 삼문 안 신당은 영험하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둔 채 섬을 떠났다. 이로 해서 삼문 안 각시당, 광양당, 내왓당, 운주당, 고스락당, 칠머리당 등이 유지되었다.

옛날 순흥고을 안씨 포수 삼형제가 입도하여 제각기 나뉘어 살았다. 첫째는 어음리, 둘째는 납읍리, 막내는 선흘리에서 살았다. 첫째와 둘째는 사냥이 잘 되는데, 막내는 사냥이 잘 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았다. 막내가 하도 갑갑하여 점을 보니, 산신에 기도를 드리라고 하였다. 유명한 무근성 고씨 심방을 청하여 큰굿을 하였다. 고씨 심방이 굿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상안체를 짚어진 소미가 난데없이 짐이 무거워져서 살펴보니 작은 뱀인 청만주에미, 흑만주에미가 들어 있었다. 고 씨 심방은 만주에미가 자신에게 태운 조상임을 알고 그대로 모셨다. 또한, 고 씨 심방은 허기져 쓰러진 중을 발견하고, 떡을 먹여 구해주었다. 중은 고 씨 심방에게 기도를 갔던 집안의 부군칠성이 조상으로 따라왔음을 일려주었다. 고 씨 심방은 중을 자기 집에 하룻밤을 묵게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중은 고 씨 심방에게 터가 좋으니 집을 짓고 살면 용수가 마를 때까지는 발복할 것이라고 하고, 아울러 부모의 뒷자리를 찾아 주었다. 그 덕으로 고 씨 심방은 상통천문 하달지리하고 대정현감을 지냈다. 그 자손도 제주도내 주요 관직을 두루 맡았다. 그러나 용수의 물이 줄어들

자 자손들도 사그라지고 재산도 없어졌다.

옛날 제주에 칠년 가뭄, 구년 흉년이 들었다. 기우제를 지내도 소용이 없었다. 이때 고대장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내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금방 내릴 것이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또가 고대장을 동헌으로 불러 기우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고대장은 도내의 심방들을 모두 불러다가 용소머리에 있는 당밭에 천막을 치고 사당클을 매고, 생짚으로 쉰닷 발 되는 용을 만들어 사당클에 올리고 꼬리는 용소에 담가 굿을 하였다. 굿을 마칠 때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자 심방은 신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늘을 원망하니, 갑자기 큰비가 내렸다. 심방들이 용을 둘러매고 동헌 마당으로 들어가니, 관장과 관속들이 비가 그칠 때까지 잔치를 벌였다. 금새 가뭄이 해소되니 그 해부터 칠월 열나흘 백중 때가 되면 심방들은 백중대제일을 지내고 백중마량으로 곡식을 받아오는 법이 생겼다.

③ 특징

조상신본풀이에 속하는 전승이다. 세 가지 개별적인 전승이 연속되어 있다. 고대장은 본래 심방이다. 대장은 대정(大靜)의 와음이다. 자손이 대정현감을 지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이야기는 이형상 목사가 당을 철폐할 때 굿을 하여 영험함을 보임으로써 제주성 인근의 당을 지켜내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야기는 남의 집에 굿하러 갔는데 워낙 굿을 잘하여 그 집의 조상신이 심방을 따라와 재복을 이루어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이야기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용연에서 기우제 격의 굿을 하여 비가 내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고대장은 뛰어난 심방이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④ 핵심어

영천 이목사, 이형상, 당 오백, 무근성, 고만호, 각시당, 남문통, 뱅맷기, 순흥고을, 안씨, 삼형제, 어음리, 납읍리, 선흘리, 부군칠성, 만주에미, 안체포, 용소, 기우제, 사당클, 백중대제일, 백중마량

⑤ 원전 서지사항

고대장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

용담동 용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용소와 기우제(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